

한국당 “4+1 여의도 타짜들...文, 선거중립내각 구성하라”

“자신들의 의석수 늘리기 위해 민의 왜곡” 맹공

“누더기 넘어 걸레되고 있는 선거법 논의 중단해야”

자유한국당은 19일 더불어민주당과 한국당을 제외한 야권의 '4+1협의체'가 진행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협상에 대해 “자신들의 의석수를 늘리기 위해 민의를 왜곡하는 선거법을 만드려 하고 있다”고 맹공했다.

특히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선거법 날치기 처리 시도는 물론 선거 관리 기관·부처 장악으로 인해 중립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며 ‘선거 중립내각’을 구성할 것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요구했다.

황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선거를 공정하게, 중립적으로 관리해야 할 국무총리와 법무부 장관이 민주당 국회의원으로 채워질 전망이다. 행정안전부 장관도 이미 민주당 의원, 게다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에도 문재인 캠프 출신 인사

가 강행 임명돼 중립성과 공정성이 크게 훼손됐다”며 “이런 시스템으로 공직선거는 말뿐, 부정선거가 눈앞에 보이고 있다”고 했다.

황 대표는 “우리가 그렇게 해서 싸워 이겨왔던 공직선거 시스템이 이미 무너진 것”이라며 “더욱이 공직선거법도 집권여당과 부속 정당들이 야합해서 국민의 뜻과 제1야당을 무시하고 헌정사상 유례없는 파렴치하고 일방적인 악법을 만들어서 날치기 하려고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에게 묻는다. 내년 총선을 국민의 뜻에 맞게 공정하게 관리할 것인가. 지금 보이고 있는 관권선거, 부정선거 조짐을 개선할 의지가 있는가”라며 “그런 의지가 있다면 선거 중립내각을 구성하라”고 요구했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회의에서 “의

석을 나눠 먹기 위해 티격태격하는 모습이 꼴불견이다. 4+1은 여의도 타짜들이다”며 “선거법을 한 번만 쓰고 버리자는 황당한 주장도 나오는 데 걸레가 되는 선거법 논의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심 원내대표는 “선거법을 이번 한번만 쓰고 버리자는 황당한 주장도 나오고 있다”며 “국가와 원 야당을 무시하고 헌정사상 유례없는 파렴치하고 일방적인 악법을 만들어서 날치기 하려고 하고 있다. 누더기를 넘어 걸레가 되고 있는 선거법 논의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경태 최고위원은 “문재인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이 정직하지 못하고 반칙과 변칙, 꼼수에 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지난 대통령 선거때 드루킹에 의한 무지파한 여론조작이 있었다. 지난 지방선거 또한 공권력을 동원한 명

백한 여론조작이자 불법선거였다”고 주장했다.

조 최고위원은 “원내 6석밖에 되지 않는 정의당이 대한민국의 국회를 흔들고 있다”며 “이것이 의회민주주의인가. 1+4의 정체는 (민주당을 제외하고) 각각 2석이 넘지 않는다. 이 세력들이 대한민국의 국회를 어지럽히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순례 최고위원은 “심상정 정의당 대표의 국회 정치 코미디쇼에 놀란 성난 민심이 국회 경내로 들어와 민주당과 군소 정당의 선거법, 공수처 야합 날치기에 반대한다고 외친 바 있다”며 “일부 불미스러운 행동은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지만 500조원 넘는 예산을 예결위원장도 모르게 날치기 하는 도둑놈을 보고 가만히 있을 사람이 누가 있겠나”라고 밝혔다.

그는 “날치기 민주당과 2중대 뜯마니(부하)들은 선거법과 공수처법이 1+4 협의체에서 완성된다면 바로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하겠다고 한다”며 “이것을 보고 국민이 가만히 있다면 대한민국의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 앞 패스트트랙 법안 반대 농성장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정의는 어디로 실종돼 버리는 것인가”라고 주장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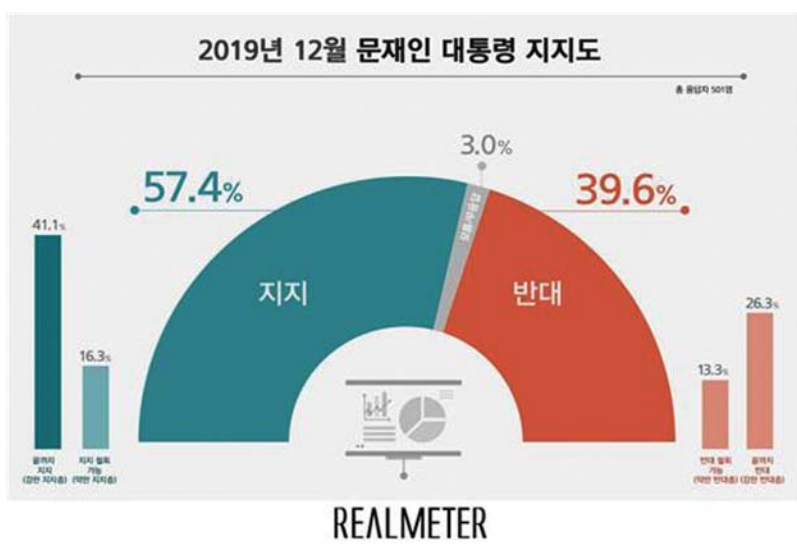
김광림 최고위원은 “국회는 국민의 뜻을 대변하는 기구다. 그래서 의회를 구성하는 방법인 선거법은 국민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해야 하는 의무가 있고 그래서 지금까지 여야가 합의해 선거법을 고쳐 왔다”며 “그런데 심상정 대표

수도 없고 알 필요도 없다고 했다. 이런 것들이 민주당과 야합하는 독재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김 최고위원은 “청와대와 정부, 민주당은 민심대로 선거법 역주행, 검찰과의 전쟁을 멈춰야 한다. 그리고 윤리해야 할 것은 첫째 경제, 둘째 일자리, 셋째 민생”이라며 “국민의 뜻에 합치하고 그 뜻을 대변하는 것이 국회의 일”이라고 강조했다.

文대통령 ‘끝까지 지지’ 35%→41%, ‘끝까지 반대’ 20%→26%

리얼미터 여론조사...1월보다 지지·반대층 간극 넓어져



올해 초에 비해 문재인 대통령을 임기 끝까지 지지하겠다는 ‘강한 지지층’과 끝까지 반대하겠다는 ‘강한 반대층’이 각각 증가한 것으로 18일 나타났다.

문 대통령이 임기 중반을 지나면서 지지층과 반대층이 각각 결집하는 모양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tbs의 의뢰로 문 대통령 개인에 대한 지지여부를 조사한 결과, 임기 끝까지 지지할 것이라는 강한 지지층이 41.1%, 임기 끝까지 반대할 것이라는 강한 반대층이 26.3%로 조사됐다. 지난 1월 2일 실시한 조사보다

강한 지지·반대의 비율은 6.5%p와 6.8%p씩 큰 폭으로 증가했다.

현재는 지지하지만 상황에 따라 지지를 안 할 수도 있다’는 약한 지지층은 16.3%, ‘현재는 반대하지만 상황에 따라 지지할 수도 있다’는 약한 반대층은 13.3%였고, 모름·무응답은 3%였다. 약한 지지층은 지난 1월에 비해 9.0%p, 약한 반대층은 6.0%p 각각 감소했다.

강한 지지층과 약한 지지층을 합친 지지율은 57.4%, 강한 반대층과 약한 반대층을 합친 반대율은 39.6%를 기록했다.

문 대통령의 지지율과 반대율은 지역별, 지지정당별로 큰 차이를 보였다. 지지율은 호남과 충청권, 경기·인천, 서울, 30·40·50대, 진보층과 중도층, 민주당과 정의당 지지층에서는 반대율보다 크게 높거나 우세했다.

반면 반대율은 대구·경북, 보수층,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지지층에서 지지율보다 높거나 우세했다.

‘80년대 김연아’ 최윤희 문체부 2차관, 화제로 점철된 인생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단행한 인사로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에 임명된 최윤희 한국체육산업개발 대표이사.

1980년대 당시 지금의 김연아와 손연재 못지않은 인기를 누렸던 국가대표 수영선수 출신 최윤희씨(52)가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에 임명됐다. 사실상 체육행정의 수장이라 할 수 있다.

최윤희의 신임 차관은 여덟 살 때부터 수영을 시작해 1982년 4월 상비군 평가전 여자 배영 100m에서 1분 6초 57로 2년 전 언니 최윤희 씨 세운 한국 기록을 1.30초 단축

하며 생애 첫 대한민국 신기록을 세웠다.

1982년 뉴델리 아시안게임에서 배영 200m에선 2분 21초 96으로 아시아 신기록을 세우며 금메달을 땀다.

이해 배영 100m와 개인혼영 200m에서도 각각 아시아 최고 기록을 세워 아시안 게임 수영 사상 최초로 3관왕에 오르며 ‘아시아의 인어’라는 별칭을 얻었다.

이후 1986년 서울 아시안 게임 때는 배영 100m와 200m에서 금메달을 땀고, 그 공로를 인정받아 같은 해 체육훈장 청룡상을 받았다. 모두 5개의 금메달을 목에 건 것이다.

최 차관은 당시 김연아와 손연재 이상의 인기를 얻었다. 빼어난 미모와 몸매로 당시 연예인보다 더 큰 인기를 얻으며, 못 남성들은 물론 전 국민적인 인기를 구사했다.

그는 스물 다섯 살이던 1991년에 13살 연상의 가수 유현상과 결혼 발표로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

들기도 했다. 당시 록그룹 백두산의 리더였던 가수 유현상과의 결혼은 한동안 큰 화제를 낳았다.

최 차관은 연세대학교에서 체육교육학 학사와 석사 학위를 취득한 뒤 체육 행정가의 길을 밟기 시작했다. MBC 수영 해설위원을 맡기도 했다.

대한체육회 이사와 한국여성스포츠회 회장, 한국체육산업개발 대표이사 등을 역임하면서 행정 능력을 쌓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약력

- △1967년생(52세)
- △1982년 뉴델리 아시안게임 수영 3관왕, 체육훈장 청룡상
- △1986년 서울 아시안게임 수영 2관왕, 체육훈장 청룡장
- △연세대학교 체육교육학 학사, 석사
- △2002년 MBC 수영해설위원
- △2007년 한국생생보호공단 의정부지부 홍보대사
- △2018년 한국체육산업개발 대표이사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

부풀리고 조작된 가짜뉴스는 사라져야 합니다

가짜뉴스가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자극적이거나 의심스러운 뉴스는 공신력있는 기관을 통해 한번 더 검증해보는 현명함으로 가짜뉴스를 근절시켜 정직하고 바른사회를 만들어 갑시다.